# 불교방송 인터넷으로 실시간 청취

불교방송이 9일 봄 프로그램 개편과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라디오방송을 시작한다. 이번 개편은 프로그램을 신설보다는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의 새로운 코너 마련과 포맷 변화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편안함과 신선함을 동시에 제공하자는 취지로 단행했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 컴퓨터만 켜면 전국 어디서나 불교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동서남북, 고향소식' (오후 2시 10분~오후 2시55분)에서는 부산, 대구, 청주, 광주 등 4개 지방사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기자와 리포터들이 각 지역의 생활정보와 신행소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처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BBS 신행상담실' (오전 10시5분~오전 10시55분)은 청취자들의 요청해 따라 오전 시간대로 자리를 옮겼다. 이외에도 '황청원의 행복 스튜디오'를 비롯해 '음악의 마을', '살며 생각하며' '지금은 불교시대' 등은 요일별 코너를 새롭게 바꾸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봄맞은 화랑가 '법향' 가득

- 한진만 '영산전'
- 이한우 '우리 강산전'
- 불교사진연 '회원전'
- 중국 백불전
- 정경옥 '차 그릇전'
- 권영대 '서예전'

지금 화랑가에는 또다른 봄이 무르익고 있다.

삶과 자연에 대한 통찰을 추구하는 한진만교수(홍익대 동양화과)의 '한국의 영산(靈山)' 전이 서울 인사동 상 갤러리에서 열린다. 30년 간 끊임없이 산을 오르며, 자신이 느낀 산의 기운과 모습을 화폭에 담아온 한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도 수묵의 농도와 선의 굵기, 장단, 각도를 통해 펼쳐지는 자신만의 독특한 진경산수화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에는 돌탑으로 장엄된 신비로운 마이산을 소재로 한 연작을 비롯 금강산과 청량산 등을 소재로 한 500호 내외의 대작 등 총 35점이 전시된다. 마음을 가라 앉히고, 명상하듯 하나하나 그림을 바라보다 보면 산과 나무, 바람의 움직임과 구르는 돌 하나에까지 깃든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02)730-0030

새봄에 걸맞는 화려한 색채로 우리나라의 자연을 화폭에 담아낸 화가 이한우의 '아름다운 우리 강산'은 세종갤러리 제1,2전시실에서 11일~17일 신춘초대전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이씨가 평소 느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리움을 화폭에 담아 현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로, 신비한 들꽃의 생명력과 자연풍경을 기민한 관찰력과 소묘법, 표현주의적 기법으로 펼쳐보인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리기보다는 작가의 마음과 눈을 통해 독창적으로 자연을 재창출하고 있다. (02)399-1549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의 정기 회원전이 열리는 부천시청 아트센터에서는 렌즈에 투영된 부처님의 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봄꽃보다 아름다운 꽃들이 새겨진 산사의 곤창살에서부터, 동심으로 밝히는 부처님 오신날, 산사의 사계와 인도 수행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는 9일~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 이어 16일~21일 충무로 후지포토싸롱에서, 4월 24일~5월 1일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전시를 갖는다. (02)2273-5480

◇한진만 作 마이산 연작 中 '서운(瑞雲)'.

독특한 중국의 불상들을 감상하고 싶다면, 서울 청담동 장 갤러리에서 열리는 '백불전'을 찾아가자. 아름다운 미소를 간직한 중국 원나라 때 만들어진 관음불, 명나라 때의 지금강불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중국 불상 100여점이 전시된다. (02)542-5968

이밖에 반야심경을 새긴 도자기, 사찰 편액 등을 선보이는 서예가 권영대씨 서예전은 5일~11일 서울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02)734-4205, 15년간 도자기 만들기에 전념해 온 도예가 정경옥씨의 '차 그릇전'은 5일까지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 갤러리에서 열린다. (042)480-5973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김홍근이 쓰는

## 문학 속의 불교

늦은 밤 사방이 고요한데 누군가가 자꾸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갔다. 나무들도 벌써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는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무 그림자가 너무 환해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둥근 달이 하늘 한복판에 와 있다. 나까지 끌어당기는지, 머리끝이 쭈뼛 서는 것 같았다. 살랑 바람이 뺨을 스치니 정신이 한결 맑아지며, 소강절(1011-77)의 시가 생각났다.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月到天心處)
바람이 물결을 스치는데 (風來水面時)
이 깨끗한 맛을 (一般淸意味)
몇 사람이나 알라 (料得少人知)

역학(易學)의 대가로 성리학에 도가, 불가의 영향을 수용한 소강절은 천인합일의 묘한 의미를 이렇게 노래했다. 달이 남중(南中)하여 하늘 가운데 이르면, 특별히 그 인력이 느껴져 끌어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다. 그 옛날 언젠가 인류가 처음 머리를 들고 직립하기 시작했을 때도, 아마 이런 달밤이었으리라. 이럴 때, 정신은 하늘로 날아오르기 좋은 조건을 맞는다. 달이 하늘 가운데 도달하여 천심(天心)에 점을 찍으면, 그 순간 정신은 일시에 우주의 중심에 편입된 듯 활짝 깨어나기 쉽다.

### 소강절의 '풍월'

## 마음을 모으면 시간도 공간도 하나로 모인다

마치 아기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일곱 발을 떼어놓아 (즉, 칠 층의 세계를 통과하여) 세계의 중심에 도달하듯이, 달도 동산 위에 떠오른 후 부지런히 걸어가 마침내 하늘 복판에 이른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언하듯이, 천정(天頂)에 도달한 달도 세계의 중심이 열렸음을 알린다. 영물인 인간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민한 사람이 그 뜻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천지인 삼재(三才)가 합일하고, 주관과 객관이 일치하는 것을 점심(點心)이라 한다. 달이 떠올라 가없는 하늘의 마음 가운데에 딱! 점을 찍는 것은 '점심'의 자연스런 상징이 된다.

다시 덕산 이야기이다. 젊은 시절, 그가 법거량을 할 요량으로 용담선사를 찾아가는 도중에 배가 고파서 길가의 떡집에 들렀다. 덕산은 자신이 〈금강경〉 학자임을 밝히고 노파에게 점심 먹을 떡을 청하자, 노파는 그를 테스트하고 싶어졌다. "금강경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구절이 나오는 걸 당신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마음에 점을 찍겠다(點心)고 떡을 청하는데, 대체 어느 마음에 점찍겠느냐는 것이다." 말문이 막힌 덕산은 떡도 얻어먹지 못한 채 쫓겨났음이 물론이다.

넓은 하늘이 달로 인해 한 점으로 모아지듯이, 한없는 시간도 한 점으로 모아지는 때가 있다. 서양에서는 그런 시간을 지상의 역사적 시간(크로노스)과 대비하여 초월자가 개입하는 응축된 시간(카이로스)이라고 부른다. 붓다는 해가 남중하는 사시(巳時)에 하루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카이로스를 이룩하는 '점심'의 기회로 삼았다. 한 점의 음식으로 공복에 점을 찍듯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시공간도 하나로 모아진다. 식사를 내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로 만드는 것이 점심, 마음의 점찍기이다.

■문학평론가

## 문화소식

### 선재스님 사찰음식 강좌

선재스님이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개원기념 사찰음식 및 건강 무료강좌를 7일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보타사에서 연다.

이번 특강은 전통 사찰음식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적합한 건강관리법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02)928-2074

### 광주 전남 불교합창예술제

제5회 광주 전남 불교 합창예술제 '붓다'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최로 1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예술제에는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백양사합창단, 한마음선원 혼성합창단 등이 노래를 통해 부처님의 탄생과 고행, 깨달음과 전법, 열반을 노래한다. (062)375-9986

연극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

## '버려야 얻는다' 불교적 메시지

우리 연극의 1번지 대학로에서 모처럼 불교연극이 선보인다. 오는 5월 6일까지 서울 대학로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나비는 천년을 꿈꾼다'가 바로 그것이다.

땅끝마을에 위치한 미황사와 그 옆 산장을 배경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산사를 찾아간 한 사내가 빠지는 비극적 사랑을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다룬 연극이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를 부제로 빠르고, 편리하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모든 고뇌의 근원은 탐심에 있으며, 버려야만 참으로 얻을 수 있다는 불교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연극은 특히 항냄새, 객석에 깔린 낙엽, 환상적인 춤과 음악 등 다양한 이미지 소품과 장치로 번뇌와 해탈에 대한 이야기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연극에 색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이다. 92년 김동리 원작 소설 〈등신불〉을 퍼포먼스화 한 작품을 공연한 경력이 있는 우현주씨가 연출을 맡았다. (02)3673-0258

4월 10번 공연 성악가 정률 스님

## 전국 누비며 '찬불' 음성 공양

부처님 오신날을 한달여 앞둔 요즘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바로 성악가 정률스님이다.

스님은 5일 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 새내기 프로포즈 공연을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전국을 누비며 10차례의 공연을 갖는다. 8일과 15일에는 니르바나 실내악단의 봉축음악회에서 찬불가와 가곡, 아리아를 부를 예정이며,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대구, 원주, 울산, 삼천포, 전주 등 전국을 돌며 여러 형태의 음악회와 봉축기념행사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보인다.

지난해 부르나솔리스트 앙상블을 구성하기도 했던 스님은 주중에는 합창연습과 국방부내 원광사 합창단 지도,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준비로 눈코뜰새가 없다.

"그동안 음악을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음성공양으로 회향할 때라는 생각에 부족하지만 공연에 나섰습니다"라는 스님은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독창회를 통해 아름다운 우리 찬불가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은자 기자


중국 서안 국보사찰 선유사 신라대덕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황실사원 법문사 현존 유일의 불지골(佛指骨)사리 친견—
—중국 4대 불산 지장성지 구화산 음력 윤4월 천도재—

수당시대부터 불교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쳤고, 당송대의 수많은 문인학사들이 거쳐갔던 중국의 국보사찰 선유사.
당나라 대종때 구법차 오셨다가 황제의 명을 받아 선유담에서 기우제를 지내신 "왕오천국국전"으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고승 혜초스님.
댐건설로 인한 선유사의 수몰때문에 인근 언덕위에 새로 복원되는 선유사에 대웅보전 법왕탑과 나란히 혜초스님의 기념비가 세워지고 김대중 대통령의 휘호 현판으로 제막식이 봉행됩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 국보사찰에 세워지는 한국스님을 위한 최초의 기념비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십시오!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행사
불기 2545(2001)년 6월 13일 오전 10시

중국서안/구화산 5박6일 99만원
1차 - 6월 11일 14시 출발 (12시 집결)
2차 - 6월 12일 10시 출발 (08시 집결)

☆ 1차 출발편과 2차 출발편은 기념비 제막식 행사 관계로 2일째와 3일째의 일정이 서로 맞바뀌며, 항공 사정상 일정 운영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인천신공항에서 출발합니다.
☆ 주최측에는 중국비자발급비용과 공항이용료 출국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30개 내외소 마감합니다.

증명 : 청화큰스님

◆세 부 일 정
제 1일 : 서안 도착후 간단한 시내 관광
제 2일 : 대흥선사, 대안탑, 병마용갱, 흥교사 순례, 화청지(유황온천욕)
제 3일 : 선유사 혜초스님 기념비 제막식 동참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법문사 불지골사리 친견
제 4일 : 구화산 도착후 육신보전 천도재, 고배경대 순례
제 5일 : 구화산 개산사찰인 화성사 순례 무호 괄경사 순례 남경 천무호 공원 관광
제 6일 : 인천신공항 도착후 해산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반야여행사 후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중국서안불교협회, 조계종전국비구니회,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방송, 불교TV 협찬 아시아나항공 고인의 명은을 편안하게 모시는 벽제정안공원 정통중국요리의 명가 하림각

반 야 여 행 사
문의전화 : (02) 730-0020